



인천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노선' 주민 간담회 개최

주민들 B/C 0.68로 0.12 부족에 신축적 검토 요청

인천광역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5일 오후 3시 30분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광역시 교통국장 등 시의회 정해권 의장 및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과 이봉락 시의원, 주민대표로 참여한 노경수 전 의장과 이종호 중구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안부두 주민과 인천시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으로 마련됐는데 그간 양자 반응은 철도망 노선에 있어 연안부두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4호선 계획과 3호선 입장은 달랐다.

연안부두 주민들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시가 연안부두 교통평가를 부실하게 조사하여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반발했지만, 인천 연구원 측이 조사한 B/C 값을 인천시가 제시했다.

결론은 연안부두 노선 확장에 선제적으로 다른 구간에 관해 예타를 받은 후에 추진하느냐 B/C 값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새로

시작하느냐 결이 달라 주민들과 의견이 갈렸다.

실제 연안부두는 옹진군 인구소멸로 가는 것과 대비해도 섬 바다 패스 등 지원과 송도 국제도시 발전의 중간에 낀 소외지역으로 연안부두 5000명의 주민들은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7개의 대형 물류창고 등 고속도로 신설로 인해 외길인 관계로 옹진은 연륙교 등 교통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연안부두 주민들 삶의 질은 현저히 낮아져 해결할 현안이다.

연안부두는 과거 '인산인해'했다. 그 영광은 퇴보를 거듭했는데 외곽에서 들어오는 길목이 한 곳이라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교통 결과가 원도심으로 추락시키는 문제를 불러왔다.

주민 간담회에서 좋은 시설은 송도로 가고 주민이 혐오하는 시설 등 버스 차고지는 교통혼잡과 물류창고 등이 생겨나면서 트럭 1만 대가 거리를 장악해 주민들의 불편은 너무도 컸다.

이에 인천 순환 3호선 연안부두

경유 노선을 검토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민들은 최근 알게 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반영 불가라는 인천시의 입장에 반발하며 충돌이 발생했다.

인천시는 주민이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철도망 노선 확장에 있어서 최저치 B/C값 0.7 사업성이 부족해 고민스럽다는 것이 향후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철도망 노선 확장을 위해서는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데 B/C 0.12가 모자라 사업비 증가 등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이런 문제가 주민과의 판이하게 엇갈린 의견이었다.

인천시는 4호선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과 일단 3호선도 국토부 승인 후 노선 확장을 위해 추가로 가자는 뜻으로 연안부두 노선 추가로 인해 자칫 사업 '예타' 좌절의 불투명을 제기했다.

간담에서 주민대표로 참석한 인천광역시 노경수 전 의장(주민단체 위원장) 발언은 현실적으로 피하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 인천시



인천광역시 노경수 전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가 전향 자세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참석한 주민들도 연안부두 노선 연장이 없다면 3·4호선은 필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B/C값 조사를 각종 현안에 대해 빼버리고 조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대중 건설 위원장은 인천시와 주민들 간 의견이 갈리는 것은 지역 현안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주민들이 힘을 모으라고 조언했다.

이봉락 시의원은 인천 제물포 등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았는데 주안, 동인천으로 직행했다. 그러나 시간을 두고 노력한 결과 있을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어 정착한 사례를 설명했다.

정해권 의장 또한, 의회가 돕겠다는 인사말 후 일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종호 중구 의장도 언론의 사례를 밝힌 후 중구민의 염원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 후 일어섰다.

주민 간담회에서 노경수 전 의장은 인천시 해당 과장의 나온 입장을 설명했는데 "3~4호선 준공은 갔다는 것, 준공 이후에 연안동 끝에 역사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주민과 소통하는 자세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과거부터 교통난에 대해 준비하지 않은 결과치가 지역을 낙후시킨 것이다. 슬럼화가 된 현실을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김양훈 논설위원

/문미순 기자

인천형 주거정책 '천원주택' 접수...반응 뜨거워

인천광역시는 6일 인천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인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들의 높은 관심을 받은 이번 사업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모집 공고 이후 하루 200건 이상의 문의가 이어지며, 접수 첫날인 6일 오전부터 접수처에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신청자가 몰려 긴 대기줄이 형성되는 등 높은 관심을 실감케 했다. 유정복 시장은 접수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 시장은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수 첫날부터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청한 것은 인천형 주거정책이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지원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2025.02.10.)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가구 등이다.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



6일 시청 중앙홀에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 등으로 정해진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는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가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신청 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심 있는 신혼부부들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길 당부했다.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모집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 누리집,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예비 입주자 모집은 14일까지 인천시청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6월 5일 입주자 선정 발표 후 주택

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천원주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현장 투어도 유정복 인천시장 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6일 오전에는 사전 모집을 통해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 5커플이 유정복 시장과 함께 미추홀구 도화동의 '천원주택'을 방문했는데 만족감을 나타냈다는 후문이다.

참가자들은 주택 내부를 둘러보며 구조와 시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유 시장과 함께 주거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면서 더 많은 주택이 배정하길 전언도 나왔다.

/문미순 기자

강화군, '국립강화고려박물관' 본격 유치전

강화군이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해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는데 역사의 고장이란 자부심이 지역 사회 소통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강화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피해 39년간 수도로 삼았던 고도(古都)로, 남한 지역 유일의 고려 역사 중심지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개성 만월대를 본떠 지은 고려궁지와 고려왕릉 4기, 팔만대장경을 판각한 선원사지 등 고려 문화유산이 풍부한 고장으로, 국립박물관을 건립해도 손색이 없다.

군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박물관의 분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기본계획에도 맞닿아 고려 문화권으로는 '강화'가 최적지라 판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국립박물관이 없어 고려 역사 문화 보존과 연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분단 이후 개성과 남한

에서 수집된 고려 문화유산이 전국의 박물관에 흩어져 있다. 이런 실정이라 강화군의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은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해 전방위적인 유치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4월에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강화의 고려 문화를 홍보하고 박물관 건립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5월에는 국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문가, 국회의원,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참여해 강화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조명한다.

범국민 서명운동 및 토론회 개최 결과는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립 건의서와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고려시대는 500년 찬란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고려 문화유산을 제대로 보존하고 전시하는 국립박물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립 강화 고려박물관을 통해 언제든 고려 문화유산을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